



就 任 辭

本人이 今般 第3代 防衛産業振興會 會長으로 就任함에 있어, 먼저 前 後方 各地域에서 國土防衛에 專念하고 계시는 國軍將兵여러분의 健闘健 勝을 축원하며, 國家安保産業의 役軍으로서 自主國防達成을 위하여 獻身 的으로 이바지 하고 계시는 會員社 全體 從事員 여러분의 勞苦에 大하 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.

특히 防産振興會 會長이라는 重責을 맡게되니 솔직히 말씀드려 두려움이 앞 서며, 重且大한 責務에 비추어 양어께가 무거워짐을 절감하게 됩니다. 그러나 오직 誠意와 努力으로 微力하나마 防産業界의 발전과 權益增進에 積極 이바지 할 작오입니다.

돌이켜 보건데 지난 70年代는 일부 過剩投資의 集中化, 過熱 景氣現象의 深 化 등 量的인 外形의 成長의 偏重과 더불어 數年間に 걸쳐 不透明하였던 國際 的 不況要因이 加增되어, 經濟成長의 鈍化는 물론 否定的 惡循環이 계속되어 왔다고 보아집니다.

그러나 지난해 우리는 卓越하신 大統領 閣下의 領導下에 온 國民 모두가 어 려운 逆境을 슬기롭게 克服 精進함으로써 負의 成長을 회복하고 7%의 經濟成 長을 이룩한 보람을 역역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, 이제야 말로 지난해에 이 룩한 安定的 基盤위에 새로운 活路를 개척하고 第2의 經濟跳躍을 향한 발판 을 더욱 튼튼히 構築하여야 할 매우 重要하고도 어려운 時點에 저해 있다고 봅니다.

따라서 앞으로 우리 防衛産業界는 技術革新을 통한 內需基盤의 鞏固化, 持 續的인 國際競爭力的 提高등을 비롯한 自律的인 經營改善 努力에 주력함으로 써 政府가 支援해 주는 同伴者의 立場에서 官民對話를 더욱 活性化하므로서 새 時代 새 經濟暢達은 물론 社會的 責任을 다하는 企業報國의 정신으로 어려운 經濟危機 局面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思慮되며, 이와같은 80年 代의 巨視眼的인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政府施策에 積極呼應함은 물론 더욱 奮發 精進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.

끝으로 關係當局의 變함없는 指導鞭撻을 仰請하오며 여러분의 健康과 幸運 이 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貴部隊(社)의 無窮한 繁榮과 발전을 진심으 로 祈願하는 바입니다.

1982年 月 日

韓國防衛産業振興會

會 長

류한우